

KIA, 4강행 '살얼음판'

롯데와 더블헤더 1승 1패 5위 두산과 불과 반계임차



“마지막 롯데전을 잡아라” KIA와 두산의 ‘4위 싸움’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 승부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롯데를 2-1로 제압한 KIA는 1일 광주에서 계속된 롯데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3-5로 역전패를 당한 뒤 2차전서 7-2로 승리, 포스트시즌 자격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전날 삼성을 5-4로 꺾은 두산도 이날 SK전서 2-0으로 신승하며, 꺼져가던 4강행의 불씨를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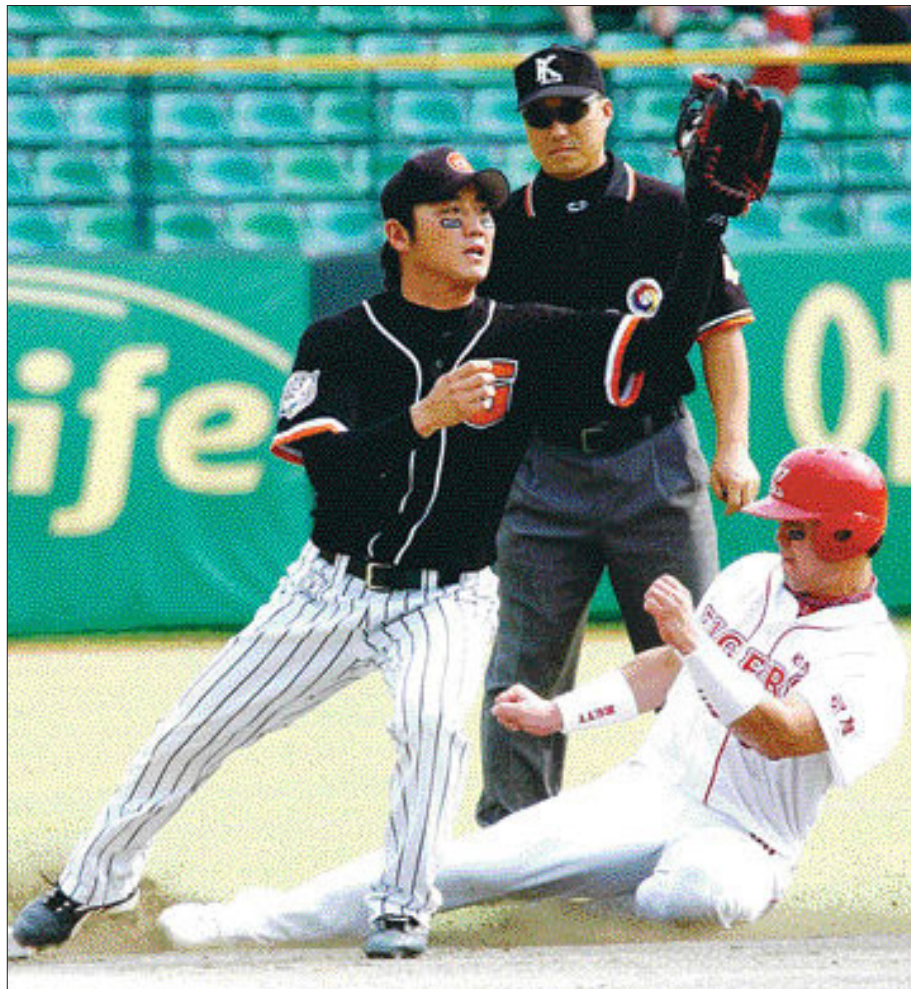
KIA는 이로써 5위 두산과 반계임차, 4위를 유지하며 남은 1경기(2일 광주 롯데전)에서 승리하면 자격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이 나머지 2경기(62승 59패 3무)를 모두 승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KIA는 1승(63승 59패 3무)을 거둬야만 동률을 이루고, 상대 전적(11승 6패 1무)이 앞서 준플레이오프에서 한화와 맞붙게 된다.

KIA는 그러나 2일 롯데전서 패하면 두산이 남은 2경기(2일 한화, 4일 롯데)서 1패를 당해야만 4강에 입성할 수 있다.

KIA는 이날 1차전서 1회 장성호와 이재주의 연속 솔로포에 이어 4회 이종범의 좌중간 2루타와 손지환의 1타점 적시타로 3-0을 합작, 초반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5회 선발 김진우가 연속 3볼넷을 내주는 등 갑작스런 제구력 난조로 3실점한 뒤 9회 마무리 윤석민이 2실점하며 3-5로 석패했다.



1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롯데 더블헤더 1차전. KIA 2회말 무사 1·2루에서 김상훈의 보내기비트때 2루주자 손지환이 3루에서 아웃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

KIA 선발 김진우는 4.1이닝 3피안타, 5볼넷,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계속된 2차전에선 KIA가 승수를 쟁겼다.

KIA는 2회 2사 1루서 김상훈, 이현곤의 연속안타로 선취점을 올린데 이어 이용규의 볼넷으로 만든 만루 찬스서 김원섭이 볼넷을 골라 밀어내기 1점을 추가했다.

4회 롯데 이대호에게 솔로포로 한판, 불안한 2-1 리드를 유지하던 KIA는 4회 1점, 5회 2점, 7회 2점을 보태 승부를 마감했다.

2회 1사 만루서 선발 이동현에게 마운드를 물러받은 KIA 신용운은 3.1이닝 동안 1실점 호투하며 시즌 4승을 쟁겼다.

한편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이날 수월 현대전서 5-0 승리를 지켜내며 세이브 1개를 추가, 47세이브(4승 3패)로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이외에 히토키(주니치 드래곤스)가 세운 아시아 한 시즌 최다세이브 기록(46개)을 새로 작성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얼짱’ 최나연 시즌 첫승 ‘입맞춤’

12언더파...스타투어 우승 신지에 3타차 아쉬운 2위



‘얼짱 소녀 골퍼’ 최나연(19·SK텔레콤)이 고대하던 시즌 첫 우승컵을 안았고, 함평골프고 3학년 ‘슈퍼루키’ 신지에(18·하이마트)는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최나연은 30일 함평의 4계절 양잔디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파72·6천27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정상에 올랐다.

신지에의 추격을 3타차로 따돌린 최나연은 프로에 뛰어들어 지난해 레이카사이드여자 오픈 우승 이후 485일 만에 통산 2승을 쌓았다.

아마추어 시절인 2004년 ADT캡스인비테이셔널 우승까지 합치면 통산 3승.

아마추어 때부터 예뻐장한 용모에 다부진 플레이로 인기를 끌었지만 동갑내기 친구 박희영(19·이수건설)에게 신인왕을 빼앗긴 데다 유난히 준우승이 많아 가슴앓이를 했던 최나연은 이로써 2인자 설움을 날려버리게 됐다.

올해 세 차례 열린 KB스타투어에서 준우승 두 차례에 이어 우승까지 일궈내 ‘KB스타투어 전문 선수’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다.

전날 3타차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우승을 사실상 예약했던 최나연은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우승까지 내달렸다.

신지에가 3타를 줄이며 추격에 나섰지만 최나연은 13번홀(파4) 버디에 이어 16번(파4), 17번홀(파5) 연속 버디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최나연은 “정말 우승을 예타게 고대했는데 마침내 뜻을 이뤄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마다 버디 2만원, 이글 5만원씩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최나연은 지금까지 248만원을 모았고 소속사 SK텔레콤이



시즌 첫 우승을 일군 최나연이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위적림기자 jrwi@kwangju.co.kr

년 248만원을 보태 496만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최나연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돈을 모아 소녀 소녀 가장 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과 상금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금랭킹 1위 신지에의 전날 3위에서 한 계단 뛰어 오른 준우승(9언더파 207타)을 차지하면서 공동 6위(4언더파 212타)에 머문 박희영과 격차를 조금 더 벌였다.

송보배(20·CJ)는 2오버파 74타로 부진, 공동 5위(5언더파 211타)로 내려 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B스타투어 최종 순위

순위	이름	성적
1	최나연	12언더파(68-67-69)
2	신지에	9 " (68-70-69)
3	우지연	6 " (68-71-71)
	이보리	68-71-71
5	송보배	5 " (70-67-74)
	임지나	4 " (72-70-70)
	전혜영	73-69-70
6	박희영	70-71-71
	김수아	72-68-72
	홍 린	70-70-72

선동열 ‘친정 재부리기?’

KIA 팬들 “삼성,두산에 석연찮은 패배” 분노 잘 던지던 선발 빼고 상대에 약한 투수 기용

“선(동열) 감독님, 이젠 당시에 대한 짝 사람을 짚겠습니다.” KIA 구단에 선 감독의 영구 결번 18번 사재를 요청합니다

선동열 삼성 감독이 시즌 막판 KIA팬들로부터 이유있는(?) 질타를 받고 있다.

한국 야구위원회(KBO)와 KIA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일 현재 선 감독에 대한 비난의 글이 수백여건이나 쏟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삼성-두산전서 선동열 삼성 감독의 석연치 않은 경기 운영 때문.

삼성은 KIA와 4강 다툼이 치열한 두산과 이날 맞대결서 1회 3점, 2회 1점을 뽑아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5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던 삼성 선발 임동규가 갑자기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6회 바뀐 삼성투수 권 혁은 연속 볼넷으로 1사 1,2루를 만든 뒤 채형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채형직마저 또 다시 볼넷.

1사 만루의 위기 상황에 몰린 삼성은 다 음타자 김동주의 병살타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삼성 채형직은 7회말 우전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1,2루의 위기 상황을 자 초한 뒤 결국 두산 손지환에게 적시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평소 ‘마운드 운용의 신’으로 불리는 선 감독의 스타일이라면 철벽 계투진인 권오준, 오승환을 올리는 게 정석인 상황. 특히 오승환은 이날 1세이브만 보태면 아시아 신기록 수립의 대 기록도 작성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선 감독은 어찌된 일인지 줄줄이 좌타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타자에 ‘취약’인 사이드암 박석진을 마운드에 올렸다.

박석진은 결국 우전 안타를 얻어맞고 1실점한 뒤 볼넷으로 만루를 자초했고, 강동우에게 싹쓸이 3루타를 얻어 맞고 3실점하며 4-5로 두산에 석연치 않은(?) 승리를 안겨줬다.

물론 선수 교체는 선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KIA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았고 섭섭하기 그지 없었다. 시점도 너무 좋지 않았다.

두산과 4강 다툼을 벌이는 KIA팬들로선 선 감독이 KIA(전 해태) 출신이라는 점에서 승패를 떠나 이날 경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날 두산전은 경기 내용상 정규리그 1위팀의 플레이라고 보기에 딱딱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두산 김경문 감독도 경기 후 “삼성이 우리에게 마지막 보너스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을 정도. 사장이 이쯤되자, 선 감독의 친정팀인 KIA 내부에서도 서운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정환 KIA 감독은 “팀 순위가 확정됐다고 하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프로가 아니겠느냐”면서 “아차피 우린 자력으로 4강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진 않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점 홈런을 터뜨렸다. 8월 4일 보스턴전에서 빅리그 데뷔 첫 만루포를 뽑은 뒤 무려 58일 만에 터진 시즌 3호 홈런이다.

추신수는 서재응을 상대로 지난 8월21일에 이어 이날도 2타수 1안타를 때려 타율 0.500(4타수 2안타)을 기록했다.

마지막 6번으로 선발출장한 추신수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 0.275(153타수 42안타)를 유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최나연 인터뷰

“대회 前 샷 점검 주효...상금왕 도전”

“올 시즌 우승이 없어 예타게 고대했는데 마침내 뜻을 이루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지난 30일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일군 최나연(19·SK텔레콤)은 활짝 웃으며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승 원동력은.

▲4년동안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끌어 주신 아버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다. 올 시즌 대체로 샷이 잘 되지 않아 고생했는데 이번대회를 앞두고 티칭프로와 샷 점검을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우승을 언제 예감했나.

▲2라운드부터 선두에 나서 욕심을 냈고, 마지막날 13번 홀에서 긴 버디퍼트가 들어갈 때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금왕에 대한 욕심은.

▲이번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아직 1

위 신지에에게 도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남은대회가 7개나 있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시즌 첫 우승 같았는데 골프장은 어땠나.

▲아마대회때도 승주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전반기에서만 대회가 열린다면 좋겠다. 함평다이너스티는 좋은 골프장이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출신 강경남 고향에 우승 선물

연장서 극적인 이글...올 2승 KPGA 골드레이크오픈 최종

광주 송원중학교 출신으로 한국프로골프 신예 돌풍의 주역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이 올해 첫 2승 프로선수가 되면서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서는 기쁨을 토했다.

지난해 신인왕 강경남은 1일 나주시 골드레이크골프장(파72·7천61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증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에서 연장전 이글을 잡아내 박성준(20)을 제치고 고향에서 우승컵을 안았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최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박성준과 동타를 이룬 강경남은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두 번째 연장전에서 5m이글 퍼트를 넣어 극적

인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상금 6천만원을 받은 강경남은 시즌 상금을 2억5천600만원으로 늘려 상금랭킹 4위에서 1위로 도약, 역대 최연소 상금왕과 사상 첫 시즌 상금 3억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박성준에 5타나 뒤져 우승 가능성이 낮았던 강경남은 선두권 선수들이 까다로운 핀 위치 때문에 타수 지키기에 급급한 사이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즐기며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특히 강경남은 행운이 잇따랐다. 4라운드 18번홀에서 세 번째 샷이 짧게 떨어져 2단 그린 아래쪽에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에 빨려들어가면서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한편 3년 만에 상금왕 탈환을 노리던 신용진(42·LG패션)은 공동 28위(2오버파 290타)에 그쳐 상금랭킹 2위(2억5천300만원)로 밀려났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송원중 출신으로 한국프로골프 SBS 코리아투어 증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에서 우승한 강경남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추신수, 서재응 상대 솔로포 ‘완승’

좌타자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우완투수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과 두번째 대결에서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렸다.

반면 서재응은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안타 9개로 5실점(4자책)했고 팀이 1-6으로 지면서 패전 명에

들었다.

추신수는 1일(이하 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와 홈 경기에서 0-0 동점인 2회 말 선두타자로 나와 볼 카운트 2-1에서 서재응이 던진 5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펜스를 훌쩍 넘기는 끝자락만 1